



오월동산에 매화 518 그루 지난달 2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정문 옆 '오월 동산'에서 열린 매화나무 심기 행사에서 참가 시민 518명이 '고귀한 순결'이라는 꽃말을 가진 매화나무 518그루를 심고 있다. /위지량기자 jwii@kwangju.co.kr

준비안된 '교특법 위헌' 광주·전남 운전자들 '혼란'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 '올스톱'

검찰 지침 모호 ... 경찰 "조사는 하지만 ..."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합보험 가입자 면책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광주·전남지역 일선 경찰과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검찰청이 지난달 27일 내놓은 '교특법 업무처리 지침'에도 '중상해' 기준 등이 모호해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애꿎은 국민만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검이 발표한 '교특법 업무지침'에는 교통사고 '중상해' 관례나 구체적인 수사지침 등이 빠져 있어 일선 경찰들의 사고 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대검의 '업무지침'은 '현재의 교특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시점(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 중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공소를 하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중상해의 기준을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 ▲불치·난치병을 기본 기준으로 삼고 뇌·주요 장기의 중대

한 손상, 사지의 절단, 심각한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원한 상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상해' 교통사고를 둘러싼 법률분쟁 및 마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중상해'에 대한 교통사고 판례가 거의 없는 데다 형사처벌을 우려한 사고 합의금 및 추가 보험 가입 부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사마다 상해 정도나 치료기간 등의 진단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판단의 기본자료로 삼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금을 높이려 의사와 짜고 진단서를 조작할 개연성도 높아진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뤄지고 있지만 '사고 처리'는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상해' 교통사고를 둘러싼 법률분쟁 및 마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중상해'에 대한 교통사고 판례가 거의 없는 데다 형사처벌을 우려한 사고 합의금 및 추가 보험 가입 부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사마다 상해 정도나 치료기간 등의 진단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판단의 기본자료로 삼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금을 높이려 의사와 짜고 진단서를 조작할 개연성도 높아진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 손상, 사지의 절단, 심각한 변형, 시각·청각·언어·생식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원한 상실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상해' 교통사고를 둘러싼 법률분쟁 및 마찰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중상해'에 대한 교통사고 판례가 거의 없는 데다 형사처벌을 우려한 사고 합의금 및 추가 보험 가입 부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사마다 상해 정도나 치료기간 등의 진단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판단의 기본자료로 삼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금을 높이려 의사와 짜고 진단서를 조작할 개연성도 높아진 것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18 암매장 제보 효령동 일대 발굴

광주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암매장지로 제보받은 북구 효령동 산145-2번지를 오는 4월 23~25일 발굴하기로 했다. 이번 발굴과 유골 감정에는 임영진 전남대 인류학과 교수와 박종태 전남대 법의학과 교수, 윤창룡 조선대 치의학과 교수 등 대한법의학회 소속 교수와 유족대표 등이 참여한다. 1차 검사결과는 이르면 올해 5·18 제29주년 기념일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5·18암매장 추정지 발굴사업은 2001년 5·18규모의 무연고 묘지 11기 발굴을 시작으로 2002년 광산구 2곳, 2003년 화정동 국군광주병원 등 3곳, 2006년 문화예술회관과 북구 장등동 야산 2곳 등 모두 8곳을 발굴했지만 5·18규모의 이외 지역에서는 유골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a 7-day weather outlook.

초·중·고 짬통·냉방 교실 사라진다

광주시교육청, 사업비 651억 들여 217개 학교 현대식 냉·난방 시설

올해부터 광주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짬통·냉방 교실이 사라지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초등학교 105곳을 비롯해 중학교 61곳, 고등학교 47곳, 특수학교 4곳 등 모두 217곳에 사업비 651억원을 들여 현대식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냉·난방 시설이 갖춰진 65곳을 포함하면 전체 282개교에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는 셈이다. 시 교육청은 애초 60여곳에만 냉·난방 시설을 하는 등 3년에 걸쳐 냉·난방 확충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안순일 시 교육감의 교육 환경에 대한 개선의지가 강해 올해 사업을 끝내기로 확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의 냉·난방 시설 확보는 학생과 교사들의 숙원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 확충이 부진했다. 시 교육청은 인건비 동결에 따른 예산 절감분과 정부의 보조금 등 모두 1천295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 다음 달 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급식실 신축과 개보수에 120억원, 화장실 환경개선 35억원, 학생 사물함 교체 34억원 등 학교와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원어민 교사 확충, 교사 연수 확대,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 등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교사 학습지원에도 367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학교운영비 지원(37억원)과 초등학교 학생 준비물 구입비(43억원)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리베이트 의사' 초범도 면허취소 검토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초범이라도 무조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규정이 사실상 없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

이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대가성을 띤 금품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만 해당해 2회까지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다. 자격 정지 제재를 3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연철수

중·고교 영어수업 회화 위주로 바뀐다

봉선중 등 시범학교 지정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교의 영어 수업도 문법보다는 말하기와 듣기 등 회화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중학교 8곳, 고등학교 8곳 등 16개 학교를 '영어 회화수업 시간 운영 정책 연구학교'로 지정

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에선 봉선중학교, 전남에선 순천 남산중학교가 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2011년 2월까지 2년 동안 시범학교로 운영되며 주당 3~4시간의 영어수업 중 1시간을 회화 중심 수업시간으로 편성해 운영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단평가 31일 이후로 연기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10일 전국적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2009년 초·중학생의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이달 31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이를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학업성취도 성적 오류 논란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별

로 성적 재검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평가까지 시행되면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학업성취도 오류 과문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성적 재검계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대박 특허아이템' (Big Lottery Special Patent Items) with various offers and contact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UP 빌딩' (UP Building) featuring 'ITALO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ITALO Hybrid Exterior Waterproofing Renovation) and other services.